올해의선수상

다승왕

상금왕

넬리 코다

KO승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이 '올해의 선수'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 넬리 코다와 'LPGA 여왕' 대결 역전승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1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부문을 석권했다.

고진영은 22일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36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9개를 기록,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왼쪽 손목 통증에도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올해 주요 개인 부문을 휩쓸었다.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와는 1타 차이였다.

10월 부산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한 달 만에 승수를 추가, 우승 상금 150만 달러(약 17억8000만원)를 받은 고진영은 시즌 상금 350만2161 달러로 상금왕 3연패를 이뤘다.

상금왕 3연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후 LPGA 투어에서 13년 만에 나왔고,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 150만 달러는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사상 최대 규모다. 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넘긴 사례는 2007년 오초아의 436만 달러 이후 올해 고진영이 14년 만이다.

투어 통산 12승을 거둔 고진영은 LPGA 투어 한국 선수 최다승 공동 3위가 됐다. 박세리 25승, 박인비 21승에 이어 김세영과 고진영이 12승씩이다.

또 올해의 선수 부문도 포인트 211점으로 1위가 됐다. 고진영이 올해의 선수가 된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다.

올해의 선수에 두 번 선정된 것 역시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이 처음이다. 2013년 박인비에 이어 2017년 유소연과 박성현이 공동 수상했고 2019년 고진영, 2020년 김세영이 받았다.

시즌 5승의 고진영은 다승 단독 1위에도 올랐고, 세계 랭킹은 1위 넬리 코다(미국)를 추월하거나 격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즌 5승은 2016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이후 5년 만이다.

한 해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 레이스 역시 고진영이 2년 연속 1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3라운드까지 하타오카, 코다,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함께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은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로 타수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6번 홀(파5)까지 버디 4개로 공동 1위였던 선수들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8, 9번 연속 버디에 10번 홀(파4) 짧은 버디 퍼트를 놓쳤지만 11번 홀(파4)에서도 중거리 버디를 넣고 이 홀까지 7타를 줄였다.

고진영은 1라운드 9번 홀 이후 63개 홀 연속 그린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샷 감각을 뽐냈다.

2~4라운드 그린 적중률 100%(54/54), 대회 기간 내내 페어웨이 안착률 91.1%(51/56)나 됐다.

고진영을 막판까지 따라붙은 것은 하타오카였다. 하타오카도 이날 8타를 줄이며 끝까지 고진영을 추격했다.

15, 17, 18번 홀 버디로 고진영을 1타까지 따라붙었으나 고진영 역시 17번 홀(파5) 버디로 응수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올해 5월부터 왼쪽 손목이 아팠다는 고진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금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80% 정도"라며 "대회 전에 연습도 거의 못했는데 생각보다 샷이 똑바로 나갔고, 퍼트도 잘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2부 리그의 기적' 쏜다

내일 대구FC와 FA컵 결승 1차전
14년 만에 4번째 정상 도전

지난달 27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4강 울산 현대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에서 전남 이종호가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의 2021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4년 만의 FA컵 정상을 위한 마지막 도전이 펼쳐진다.

전남이 24일 오후 8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와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전 1차전을 치른다.

14년 만이자 4번째 FA컵 정상 도전이다.

전남은 3개의 FA컵 우승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다. 1996년 FA컵이 신설된 이후 1997·2003·2006·2007년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2003년을 제외하고 3번의 우승을 이뤘다.

유일한 준우승 경기에서도 쉽게 우승컵을 내주지 않았다. 전북현대를 상대했던 전남은 2-2로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 접전 끝에 2-4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4번째 우승을 노리는 전남은 K리그2 첫 우승이라는 기록에도 도전한다. 그동안 FA컵에서 정상에 오른 K리그2 팀은 없었다.

전남은 앞선 승부에서 K리그1 수원FC, 포항스틸러스, 울산현대 등 강팀을 제압하고 결승 진출을 이뤘다. 마지막 승부도 역시 K리그1의 대구와 치르게 됐다.

준결승에서 강원FC를 1-0로 꺾은 대구는 K리그1 3위에 랭크된 강팀이다.

대구는 지난 2018년 세드가(세징야+에드가) 조합을 앞세워 FA컵 우승을 이룬 팀이기도 하다. 이 우승 이후 새로운 축구 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 완공, AFC챔피언스리그 참가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구 축구가 한 단계 도약했다.

전남은 올 시즌을 4위로 마무리한 뒤 대전과의 K리그2 준플레이오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 이번에도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쉬움 속에 정규시즌이 끝났지만 FA컵을 통해 '명문구단 부활'을 위한 반전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전남이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2부리그 반란'을 이어가며 14년 만의 우승을 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FA컵 결승전은 홈&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24일 1차전을 치르는 전남은 12월 11일 오후 12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원정 경기를 소화한다.

FA컵 결승 1차전의 티켓은 구단 홈페이지(www.dragons.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100% 온라인 예매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화정초, 2021 광주시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광주시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정초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협회 제공〉

화정초가 2021년 광주시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화정초는 최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서림초를 5-4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화정초는 첫 경기에서 서석초를 8-0, 4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이어 부전승으로 올라온 송정동초를 3-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림초와의 결승에서도 1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신정윤이 최우수선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우수투수상(유민상), 타격상(이지훈), 최다도루상(류수길), 최다타점상(윤예찬)도 화정초가 싹쓸이했다.

◇시상내역

▲우승 : 화정초 ▲준우승 : 서림초 ▲최우수선수상 : 신정윤(화정초) ▲우수투수상 : 유민상(화정초) ▲타격상 : 이지훈(7타수 5안타·0.714·화정초) ▲최다도루상 : 류수길(5개·화정초) ▲최다타점상 : 윤예찬(4타점·화정초) ▲감투상 : 김민건(서림초) ▲미기상 : 박서한(서림초) ▲감독상 : 유종열(화정초 감독) ▲지도상 : 장경희(화정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